




'92 THE YEAR OF DANCE

부산 문화의 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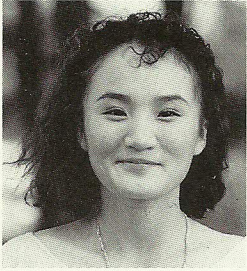
# 제1회 전국무용제

1ST KOREAN DANCE FESTIVAL

- 행사기간: '92.9.23~'92.10.1(9일간)
- 장소: 부산문화회관 대강당
- 참가: 시·도 대표 무용단 14개팀
- 주최: 한국문화예술진흥원, 한국무용협회
- 주관: 부산직할시, 한국무용협회 부산지부
- 후원: 문화부, 부산직할시교육청, 예총부산지회, 부산일보, 국제신문, 부산매일신문, KBS부산방송본부, 부산문화방송(주), 기독교 부산방송본부
- 협찬:  중소기업은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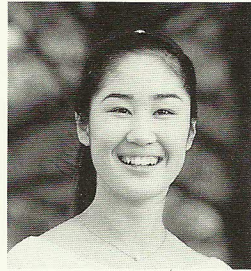
# STAFF / CAST



홍지영



장진태



이경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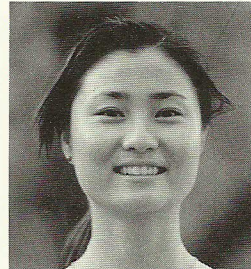
오경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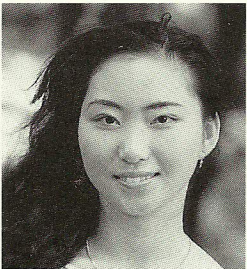
김금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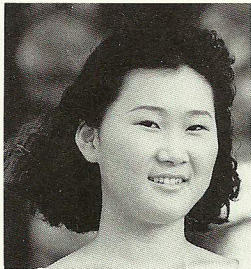
안현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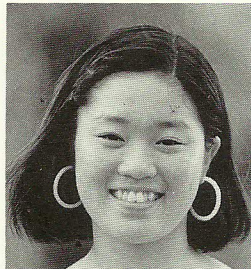
신진영



신정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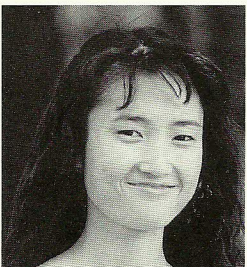
강삼숙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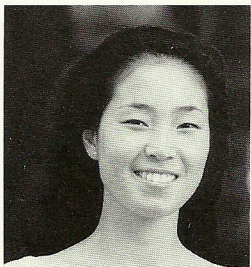
김윤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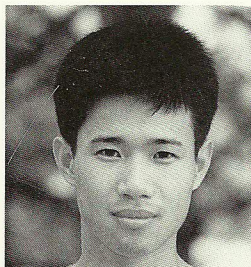
권숙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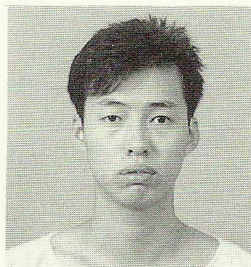
오은아



김진미



노현식



신영건



# 바람의 뉘



92 THE YEAR OF DANCE

춤의

## 공연보

- 1982. 11 김은이 춤판(김은이/안무)
- 1983. 3 제38회 무형문화재 정기공연(김은이/안무)
- 1985. 11 김은이의 춤(김은이/안무·원광/작)
- 1986. 3 김은이의 춤(김은이/안무·원광/작)
- 1987. 5 한국춤모임 「짓」창립공연(김은이/안무·신진/작)
- 1988. 11 김은이 전통춤판(김은이/안무)
- 1990. 10 제12회 서울무용제(김은이/안무·이윤택/작)
- 1991. 11 전통춤 5인전(김은이/안무)

## 작가의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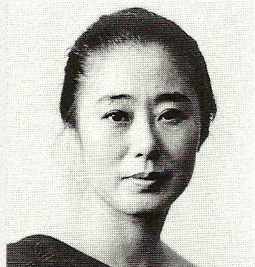
작품 「바람의 뉘」은 1980년대에 씌여진 오정희의 동명의 소설에서 그 내용을 참작하였다. 따라서 일단 소설의 주제와 내용을 염두에 두고 그 내용을 춤으로 형상화 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적합할 수 있는 형식, 즉 상황적 무용극의 형식을 취하게 되지만 다소 문학적 극적 상황성 때문에 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였다.

## 작품 줄거리

작품 「바람의 뉘」은 오정희의 중편소설로써 가장을 두고 있는 한 여성의 다면적 현실상황과 그 속에서의 방향을 다루고 있다. 이때 다면적 현실상황이란 40대 중년여성이 가질수 있는 가정, 부부관계, 또 알수없는 근원적 욕구...여성의...를 뜻하고 있는 동시에 이 소설에서는 특수하게 6.25의 전쟁상황과 겹쳐져서 일종의 유아기때의 고아의식과 관련되고 있다.

즉, 주인공인 40대여성은 가정, 남편, 인간적 욕구, 전쟁때 잃어버린 또 다른 형제사이에서 다이아몬드형처럼 둘러싸여 고통받고 또 그 속에서 방향하게 된다. 따라서 그 방향은 실존적일 뿐만 아니라 어떤 측면 자아찾기와 연결되고 있다.

오정희에 따르면 한 여성의 성장은 인간적 성숙이거나 해방이 아니고 오히려 증첩되는 굴레의 상황이다. 특히 이 소설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한 여성의 방향은 그 속에 뉘를 갖고 있는 것이기에 왜,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가를 물어 보았을 때 의미가 있게 된다. 특히 여성의 시각에서, 여성의 실존적 상황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여성적인 예술인 춤의 입장에서 흥미를 가질 수 있다. 이 공연은 소설적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다. 대신 성장한 여성이면 누구나 갖게 되는 실존적 상황과 대상물(남편, 자식, 형제, 욕구등)을 주인공의 주위에 위치시켜서 주인공의 방향이 의미있는 방향이거나 또는 방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제시하고, 더 나아가 관객들로 하여금 단순한 춤의 볼거리를 주기전에 여성들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 생각토록 유도하고자 하였다.



안무/김은이